“세월호 해경지휘부 영장 기각, 역사의 수치”

“해경내 영향력…증거 인멸 우려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유가족·시민단체 강력 반발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로 혐의를 받는 전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해경 지휘부는 국민 304명을 살인했고, 5년 9개월 간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했다”며 “사법부는 공문서까지 조작한 이들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의 탈출을 막고,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 기다리던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중요했던 자들”이라며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족을 상대로 잔인한 희망고문을 가했던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오늘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발부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민변은 “해경의 핵심 책임자인 피의자들은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고, 그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모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한 전례에 비춰 봤을때 피의자 6명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산강변 동물 전염병 방역작업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관리팀이 9일 오후 건국동 인근 영산강변에서 구제역 등 동물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추진
환경부,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

환경부는 9일 “올 상반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 광주·담양·광양 등 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리체계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4000억원이 드는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와 자동 배수 설비 등을 관망에 설치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된 수돗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관리체계는 지난해 광주 이물질 수돗물 사건,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등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허위광고 유튜버 등 15명 적발
광고 의뢰 유통판매업체 8곳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구독자가 67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라고 부르며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를 유도하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부기제거’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심리검사’ 프로그램 개발

동신대 김희경 교수
능력·조건 파악 심리검사법

지역 대학의 교수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희경 교수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도검사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준비도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 파악하는 진로심리검사다. 취업의지, 취업기술, 구직행동, 취업방해 요인 등 11개 영역에서 개인별 강점과 취약점을 세밀하게 평가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많고, 문항 수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김 교수가 개발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준비도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진로 특성과 취업 여건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취업 지원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앞서 북한이탈주민 간이심리상태검사, 탈북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상담 프로그램,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신뢰감과 친밀감을 증진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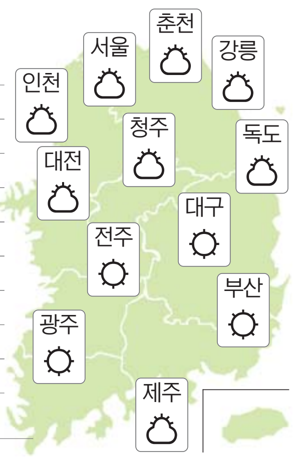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41	달뜸	17:04
해짐	17:38	달짐	06:59

감기 조심하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9	보성	맑음	-4/8
목포	맑음	-1/6	순천	맑음	-1/11
여수	맑음	1/9	영광	맑음	-3/6
나주	맑음	-4/9	진도	맑음	-2/7
완도	맑음	0/9	전주	맑음	-3/7
구례	맑음	-4/9	군산	맑음	-3/6
강진	맑음	-2/10	남원	맑음	-5/8
해남	맑음	-3/8	흑산도	구름많음	4/7
장성	맑음	-4/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
서해남부	먼바다(북)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서해남부	먼바다(남)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
남해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1.5
남해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 생활지수

감기	매우 높음
뇌졸증	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45	01:13
	19:32	14:08
여수	02:23	09:01
	15:05	21:03

◇ 주간 날씨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0/8	0/6	-1/5	-3/5	-2/5	-2/6	-1/6

광주노동청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예방활동 강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9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인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주에겐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예정이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일명 ‘오야지’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상급 업체에 연대책임을 묻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 5개구,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광주시 5개구가 동시에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는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확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자 실시되며 4월 15일 치르게 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명부에 등록된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정병호 기자 jusbh@